



한·콜롬비아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콜롬비아가 한·콜롬비아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콜롬비아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 및 농산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는 FTA를 통해 공산품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FTA인 만큼 조속한 발효를 통해 선점효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1 한·콜롬비아 FTA 추진 현황

- 한·콜롬비아 FTA는 2013년 2월 정식 서명 이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비준을 완료했음에도 발효가 늦어지고 있음
- 한·콜롬비아 FTA는 2009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7차례의 협상을 통해 2년 6개월 만인 2012년 6월 타결
- 우리 측은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완료했으나, 콜롬비아 측은 2014년 12월에서야 의회 절차를 완료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승인 대기중
 - 콜롬비아의 FTA 비준은 의회 절차 4단계(상원위원회→상원→하원위원회→하원) 및 헌법재판소의 승인이 요구되는데, 2014년 6월 하원이 비준 심의를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처음부터 다시 승인 절차를 진행
- 콜롬비아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 간 합의를 통해 발효 일자를 결정

한·콜롬비아 FTA 추진 경과

일자	추진경과
2008. 7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콜롬비아 측이 양국 간 FTA 체결 검토 요청
11	APEC 정상회담 계기 한·콜롬비아 FTA 사전 공동연구 추진 합의
2009. 3	한·콜롬비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9. 12~2012.6	제1~7차 한·콜롬비아 FTA 협상
2012.6	한·콜롬비아 FTA 타결
2012.8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2	한·콜롬비아 FTA 서명
2014.4.2	우리 국회 비준 동의 완료
12	콜롬비아측 의회 승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탈(fta.go.kr)

- (관세 철폐)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무역 품목 대부분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
- 콜롬비아는 발효 10년 내에 품목 수 기준 96.7%, 수입액 기준 97.8%에 대해 관세 철폐 예정
 - 콜롬비아의 5년 내 관세철폐 비중은 수입액 기준 55.5%이고,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수출의 25.8%를 차지('14년 기준)하는 승용차는 10년 내 관세철폐에 합의
 - 한국은 발효 5년 내 품목 수 기준 90.3%, 수입액 기준 9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TRQ,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
 - 한국은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1개(품목수 기준 10.0%)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이종의 보호장치 마련

한·콜롬비아 FTA 양허 수준 비교

(단위 : 개, 백만 달러, %)

양허유형	한국양허				콜롬비아양허			
	품목수	비중	對콜롬비아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9,787	82.4	85.8	66.9	4,390	60.6	283.5	341
무관세	1,932	16.3	36.2	28.3	265	3.7	31.2	3.7
유관세	7855	66.1	49.6	38.7	4,125	57.0	252.4	30.3
3년	268	2.26	3.8	3.0	33	0.5	1.4	0.2
5년	670	5.6	37.3	29.1	1,547	21.4	176.3	21.2
(5년내)	10,725	90.3	126.9	99.0	5,970	82.5	461.3	55.5
7년	136	1.1	1.3	1.0	503	7.0	37.3	4.5
9년					1	0.0	41.2	5.0
10년	558	4.7	0.03	0.0	529	7.3	273.8	32.9
(10년내)	11,419	96.1	128.2	100.0	7,003	96.7	813.6	97.8
10년 초과	304	2.6	0.02	0.0	184	2.5	18.3	2.2
TRQ	5	0.0	0	0.0	6	0.1	0	0.0
양허제외	153	1.3	0.006	0.0	47	0.7	0	0.0
총 합계	11,881	100.0		100.0	7,240	100.0	831.9	100.0

주1 : 품목수는 한국은 HSK 2010 10단위 기준, 콜롬비아는 HTSC 2007 10단위 기준(농산물은 8단위)

주2 : 수입액은 2007-2009년 3개년 평균

주3 : n년 철폐 - 발효일부터 n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발효일이 1년차, n년차에 무세)

자료 : 관세부처합동 「한·콜롬비아 FTA 상세설명자료」

2

한·콜롬비아 무역 현황

- 對콜롬비아 수출은 지난 2010~2014년 간 연평균 2.1%, 수입은 연평균 8.9% 증가
- 양국 무역은 2006년 처음으로 10억 달러 대에 진입한 이후 2014년에는 수출,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20억 달러를 초과

- (수출) 자동차부품 수출이 크게 감소해 2012~2013년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했으나, 2014년에는 자동차부품 수출의 회복으로 10% 이상의 증가율 기록
- (수입) 2013년 수입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2014년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3.6억 달러)해 對콜롬비아 총수입이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

한국의 對콜롬비아 무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11-'14년 연평균
수출	13.9 (74.2)	16.1 (16.2)	14.7 (-9.1)	13.4 (-8.5)	15.1 (12.4)	2.1
수입	4.3 (245.9)	3.8 (-12.1)	4.1 (9.1)	2.1 (-50.2)	6.1 (194.1)	8.9
무역	18.2 (97.5)	19.9 (9.5)	18.8 (-5.6)	15.5 (-17.7)	21.2 (36.7)	3.8
수지	9.6	12.3	10.5	11.4	9.0	-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시장 점유율) 콜롬비아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약 2.3%대의 점유율로 8위(2014)를 차지했고, 콜롬비아는 한국 수입시장에서 56위(0.1%)로 중남미 국가 중 5위를 기록
 - 콜롬비아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이 점유율 28.4%로 1위, 중국이 18.4%로 2위, 그 뒤를 이어 멕시코, 브라질 등 기타 중남미 국가도 높은 점유율 기록
 - 콜롬비아는 상위 5개 수입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과 이미 FTA를 발효
 - * 멕시코('95.1월), 브라질('09.5월), 미국('12.5월), 독일('13.8월)과 모두 발효
 - 중국은 콜롬비아 측에 FTA 협상 개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콜롬비아와 2012년 협상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9차례 협상 개최

국가별 콜롬비아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순위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1	미국	25.8	24.9	24.1	27.5	28.4
2	중국	13.5	15.0	16.6	17.4	18.4
3	멕시코	9.5	11.1	10.9	9.3	8.2
4	독일	4.1	4.1	3.8	3.7	4.0
5	브라질	5.8	5.0	4.8	4.4	3.9
6	프랑스	2.7	3.3	1.9	2.4	2.9
7	일본	2.8	2.6	2.8	2.5	2.4
한국		2.3	2.3	2.2	2.2	2.3
(순위)		(10위)	(10위)	(8위)	(9위)	(8위)

자료: Global Trade Atlas

□ **(무역 특징)** 양국은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로부터 주요 원자재 및 농산물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보이고, 상위 소수 품목에 무역이 집중

-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어, 석유화학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합금철, 커피, 동괴 및 스크랩,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등 자원과 커피, 화초류(장미, 카네이션) 등 농산물임
-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 비중은 68.1%, 對콜롬비아 수입 상위 5개 품목의 수입 비중은 92.2%를 차지

우리나라의 對콜롬비아 주요 무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품목명	2013	2014 (증감률)	비중	품목명	2013	2014 (증감률)	비중
승용차	370.4	389.1 (5.1)	25.8	원유	0.0	360.9 -*	59.4
자동차부품	128.3	156.0 (21.6)	10.3	합금철	52.9	88.6 (67.7)	14.6
합성수지	114.7	149.1 (30.0)	9.9	커피류	56.8	83.0 (46.2)	13.7
타이어	70.4	82.7 (17.5)	5.5	동괴 및 스크랩	11.8	16.6 (41.0)	2.7
무기류	1.4	67.3 (4,560.7)	4.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1.9	11.2 (-6.0)	1.8
기타석유화학제품	57.8	56.5 (-2.2)	3.7	고철	8.0	11.1 (38.6)	1.8
화물자동차	44.7	36.4 (-18.5)	2.4	농약	10.8	9.6 (-11.5)	1.6
선박	0.0	31.9 (0.0)	2.1	화초류	4.2	4.6 (10.7)	0.8
무선전화기	42.3	29.9 (-29.4)	2.0	기타가죽	1.6	2.8 (77.5)	0.5
섬유기계	36.8	28.8 (-21.6)	1.9	유연탄	28.6	2.3 (-91.9)	0.4
소계	866.8	1,027.9 (18.6)	68.1	소계	186.4	590.6 (216.8)	97.2
총계	1,342.3	1,509.4 (12.4)	100.0	총계	206.6	607.6 (194.1)	100.0

주1 : MTI 4단위

주2 : 원유의 수입증가율은 173,491,85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관세 철폐 일정)**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품 중 합성수지 및 무선전화기에 대한 관세는 즉시, 타이어, 철강제품 및 자동차부품은 5년,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10년 간 철폐 예정

- 우리의 對콜롬비아 최대 수출품목으로 수출 비중이 28.2%에 달하는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에 부과되던 35%의 관세는 10년 간 균등 철폐될 예정
- 타이어, 철강제품 등은 5년 내 균등 철폐될 예정으로 이들 제품은 경쟁국에 비해 가격적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해 수출실적이 제고될 전망

3

주요품목 양허내용

□ 콜롬비아 측의 MFN 실행세율 대폭 인하조치(2010년)로 협정 발효 후 FTA 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별도 협상을 통해 보완책 마련

○ FTA 세율이 MFN 대비 높은 기간에는 MFN보다 0.5%p 낮은 관세율 적용

* (예시) 평판압연제품(HS 7210709000)은 FTA 발효 1-2년차 FTA 세율 > MFN 세율이므로, 이 경우 MFN 세율에서 0.5%p 낮은 특혜 관세 부과

평판압연제품 (HS 7210709000)	FTA 발효 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MFN 세율	5	5	5	5	5	5
FTA 협정세율	-	8	6	4	2	0
FTA 적용세율(협상 후)	-	7.5	5.5	4	2	0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10	품목명	對한국 수입액	수입시장 점유율	기준 세율	MFN (2015)	양허 유형
8703239090	기타 가솔린승용차(1,500cc초과-3,000cc이하)	230.6	13.4	35	35	10년
8703229090	기타 가솔린승용차(1,000cc초과 - 1,500cc이하)	104.3	19.4	35	35	10년
8906100000	군함	64.4	66.8	5	5	즉시
4011201000	버스·화물차용 래디알 타이어	62.3	21.4	15	10	5년 *1년차(9.5), 2년차(9), 3년차(6), 4년차(3), 5년차(0)
8450200000	세탁기(세탁용량 10KG 초과)	30.0	17.6	15	10	12년 *1-4년차(9.5), 5년차 (8.75), 6년차(7.5), 7년차(6.25), 8년 차(5), 9년차(3.75), 10년차 (2.5), 11년차(1.25), 12년차(0)
8703210090	사륜구동 가솔린승용차(1,000cc 이하)	27.2	25.9	35	35	10년
7326190000	기타 철강단조물	20.8	75.9	15	5	5년 *1-3년차(4.5), 4년차(3), 5년차(0)
8703329000	디젤 승용차(1,000cc초과 - 1,500cc이하)	19.0	46.6	35	35	10년
4011101000	승용차용 타이어	18.6	10.3	15	10	5년 *1년차(9.5), 2년차(9), 3년차(6), 4년차(3), 5년차(0)
8703231090	사륜구동 가솔린승용차(1,500cc초과-3,000cc이하)	16.6	6.8	35	35	10년
9306901100	폭탄. 수류탄 등 발사체	16.3	65.6	20	15	5년 *1년 차(14.5), 2년 차(12), 3년차(8), 4년차(4), 5년차(0)
8702109000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13.9	10.1	15	15	10년
7210709000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 도포 평판압연제품	12.3	79.9	10	5	5년 *1-2년차(4.5), 3년차(4), 4년차(2), 5년차(0)

주 : FTA 세율> MFN 세율인 경우, 이 기간 동안 FTA 연차별로 적용되는 관세를 나타냄

자료: Global Trade Atlas, 콜롬비아 관세청, 콜롬비아 양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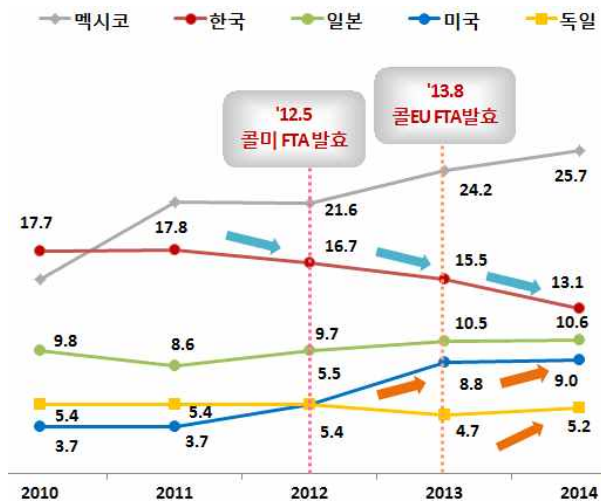
4

한·콜롬비아 FTA 수출 유망품목

- (승용차) FTA 발효 시 한국산 승용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콜·미 FTA, 콜·EU FTA 발효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우리 시장점유율 회복의 기회가 될 전망
- 한국산 승용차(HS8703) 점유율은 2011년 17.8%에서 2014년 13.0% 크게 하락한 반면, 미국은 2012년, 독일(EU)은 2013년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를 계기로 점유율 상승
 - 미국의 점유율은 2011년 3.7% 수준에서 FTA 발효 2년 만인 2014년 9.0%로 5.3%p 증가했고, 독일은 FTA 발효 이후 주춤했던 점유율을 회복
 - * 미국산 승용차 관세율/점유율(%): 35/3.7('11)→ 31.5/5.5('12)→ 28.0/8.8('13)→ 24.5/9.0('14)
 독일산 승용차 관세율/점유율(%): 35/5.4('12)→ 30.6/4.7('13)→ 26.3/5.2('14)
 - 여러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가 진출해 있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어 콜롬비아 수입시장 점유율이 25.7%(2014년)에 달함
 - 한·콜 FTA가 발효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35%의 고관세가 1년에 3.5%씩 단계적으로 인하(10년 철폐)되므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주요국 콜롬비아 승용차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주 : 콜롬비아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수입 제외
 자료: Global Trade Atlas

<주요국의 콜롬비아 승용차 관세>

(단위:%)

국가	'11	'12	'13	'14	'15	철폐 시점
멕시코	0	0	0	0	0	2007
한국	35	35	35	35	35	FTA 발효후 10년
일본	35	35	35	35	35	FTA 미체결
미국	35	31.5	28	24.5	21	2021
독일	35	35	30.6	26.3	21.9	2022

자료: 콜롬비아 관세청

- (타이어) 5년 내 관세철폐 예정¹⁾으로, 관세 인하를 통해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증가하여 중국,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브라질은 콜롬비아 타이어 수입시장(HS 4011)의 상위 5개국 중 유일하게 콜롬비아와의 FTA를 발효해 타이어 수출 시 무관세 적용

1) 한국의 對콜롬비아 주력수출품목인 HS 4011101000, HS 4011201000에 한함. 기타 타이어는 즉시, 5년, 7년 철폐로 구분됨

<주요국 콜롬비아 타이어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순위	국가	'10	'11	'12	'13	'14
1	중국*	25.8	28.4	27.6	21.0	21.4
2	일본*	16.4	15.5	19.6	21.3	17.8
3	브라질	11.5	10.3	10.6	10.0	12.8
4	한국	5.1	6.0	5.8	8.7	11.2
5	태국*	2.1	1.8	2.4	3.8	5.8

주 : *는 콜롬비아와의 FTA 미체결 국가
자료: Global Trade Atlas

<타이어 세부품목의 관세철폐 스케줄>
(단위: %)

HS10	기준세율	MFN	관세철폐 시기
401101000	15	10	5년 *1년차(9.5), 2년차(9), 3년차(6), 4년차(3), 5년차(0)
401109000	15	10	7년 *1-2년차(9.5), 3년차(8.6), 4년차(6.5), 5년차(4.3), 6년차(2.1), 7년(0)
401201000	15	10	5년 *1년차(9.5), 2년차(9), 3년차(6), 4년차(3), 5년차(0)
401209000	15	10	7년 *1-2년차(9.5), 3년차(8.6), 4년차(6.5), 5년차(4.3), 6년차(2.1), 7년(0)
401400000	5	5	즉시

주 : 2010년 이후 對콜롬비아 수출 실적 있는 제품
자료: 콜롬비아 양허안

□ (기타) 콜롬비아의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두 자릿수 이상 품목을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 제품, 금속제품 등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수출유망품목 선정 기준 : ① 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 ②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③ 對한국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바닥갈개(HS3918101000), 폴리에틸렌프탈레이트 제품(HS3920620090) 등 플라스틱 제품은 30% 이상의 수입 증가율을 보여 FTA 발효로 10%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금속제품) 철강관(HS7306610000), 기타철강제품(HS7326190000), 기타알루미늄제품(HS7607190000) 등에 부과되던 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5 결론 및 시사점

□ 콜롬비아는 농산품 및 원자재 수출 경쟁력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한·콜롬비아 FTA로 공산품에 부과되던 고율의 관세 철폐 시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콜롬비아는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는 한·콜롬비아 FTA를 조속히 발효하여 선점효과를 충분히 활용해야 함

부록1

對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

(단위: 백만 달러, %)

분류	HS 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 (2014)	연평균 증가율 ('12-'14)	대한민국 수입 (2014)	한국의 점유율	기준 세율	MFN (2015)	양허 유형	비고 ¹⁾	경쟁국 ²⁾ 점유율 (2014)
식품	2202900000	기타 비알콜음료(주스 제외)	20.7	23.0	1.8	8.8	15	15	0		미국(28.1)
석유화학제품	2710191900	기타 석유제품	155.4	50.2	9.2	5.9	10	5	5	b	미국(70.1)
	2710193800	기타 윤활유	73.2	10.4	2.1	2.9	10	5	5	b	미국(45.6)
	2917350000	무수프탈산	8.2	11.0	1.2	14.1	15	10	7	b	브라질(74.1)
	3003200000	항생물질 포함 의약품	14.6	10.5	4.3	29.5	5	5	0		중국(49.6)
	3004902900	기타 인체용 약품	822.6	14.9	2.1	0.3	10	10	5		미국(15.5)
플라스틱제품	3824400000	시멘트용 조제 첨가제	12.8	10.2	2.4	19.0	10	5	5	b	미국(20.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26.8	10.7	6.8	25.4	10	5	7	c	벨기에(17.4)
	3903190000	기타 스티렌 중합체	6.6	12.4	1.5	22.7	15	10	7	b	브라질(26.4)
	3908101000	폴리아미드-6	6.8	11.0	2.0	29.5	15	10	7	b	네덜란드(23.6)
	3918101000	플라스틱 바닥 깔개	13.0	32.2	1.2	9.5	20	10	5	b	중국(52.2)
	3919909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판	34.2	11.5	1.2	3.4	20	10	5	b	미국(36.9)
	3920209000	축전기 제조용 플라스틱 판	90.3	10.1	1.8	2.0	20	10	7	c	페루(43.4)
	3920620090	폴리에틸렌프탈레이트 제품	9.6	30.3	4.0	42.2	20	10	7	c	미국(16.9)
	39269090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109.9	11.4	2.4	2.1	20	10	7	c	중국(41.9)
섬유·의류	5407610000	합성직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함유량 85% 이상)	26.2	17.8	1.8	7.0	20	10	7	c	중국(81.9)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 직물	14.3	29.3	1.6	11.2	20	10	5	b	중국(65.3)
	6004100000	편물 (탄성사 함유중량 5% 이상)	32.9	12.8	1.0	3.1	20	10	5	b	중국(66.2)
금속제품	7216320000	I형강	45.4	14.2	12.2	26.9	10	5	5	b	스페인(61.6)
	7306610000	횡단면이 정사각 또는 직사각형인 철강관	26.5	17.6	1.1	4.3	15	10	7	b	중국(38.3)
	7311001010	천연가스만으로 작동하기 위해 제조된 철강 용기	19.4	13.8	3.3	16.9	5	5	0		중국(26.4)
	7326190000	기타 철강제품	27.3	57.8	20.8	75.9	15	5	5	c	미국(10.0)
	7606929000	기타 알루미늄 판시트·스트립	16.3	18.9	3.0	18.2	10	5	5	b	멕시코(50.8)
	7607110000	단순 압연 알루미늄 제품	18.2	12.9	1.3	7.0	10	5	5	b	중국(67.6)
기계·전자	8421310000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35.2	12.2	2.0	5.7	15	5	5	c	미국(38.4)
	8428109000	기타 리프트	39.2	25.0	2.1	5.2	15	10	7	b	중국(69.5)
	8428909090	기타 적하·양하용 기계류	24.0	17.5	1.1	4.6	15	5	0		미국(35.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시동용 축전지	51.3	15.0	8.9	17.5	15	10	7	b	중국(21.9)
	8512201000	도로의 헤드램프	16.6	14.8	1.3	8.1	5	5	0		중국(29.6)
	8528590000	기타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19.2	15.1	2.1	10.9	20	15	0		멕시코(36.1)
	8537200000	전기제어기기	20.0	14.9	1.3	6.5	15	10	5	a	독일(22.8)
	8703249090	기타 수송용 승용차	94.9	49.8	3.2	3.3	35	35	10		미국(76.4)
수송기기	8703331000	사륜구동 디젤승용차 (실린더 용량 1,500cc 이하)	191.1	25.7	2.9	1.5	35	35	10		일본(72.1)
	8708100000	자동차부품(완충기와 부분품)	18.3	11.1	3.1	16.7	15	10	5	a	일본(18.8)
	8708292000	기타 자동차부품 (엔진덮개, 축면 등)	58.0	13.5	5.2	8.9	15	10	5	a	일본(8.1)
	8708299000	기타 자동차부품	44.3	10.6	5.1	11.4	15	10	5	a	미국(14.1)
	8708301000	기타 자동차 제동장치 및 부품	17.7	11.6	1.6	8.8	15	10	5	a	중국(30.3)
	8708701000	로드휠 및 부분품	43.5	11.6	1.0	2.4	15	10	5	a	중국(37.7)
	8708802010	자동차 서스펜션 시스템 및 부분품	29.2	14.5	3.3	11.1	15	10	5	a	중국(14.6)

주1: a는 1년, b는 2년, c는 3년 동안 MFN 세율보다 0.5%p 낮은 세율을 적용

주2: 경쟁국 점유율은 해당 HS코드 품목의 콜롬비아 수입시장 점유율 1위(한국 1위 시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

주3: HS 8708292000, 8708299000, 8708802010은 콜롬비아 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된 제품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점유율 2위 국가와 점유율을 표시

자료: Global Trade Atlas, 콜롬비아 양허안